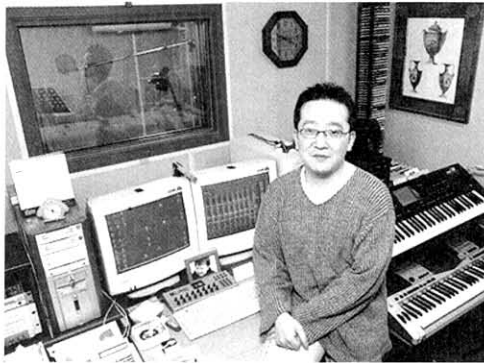


윤민석. 그는 민중가요의 창작흐름에 명확한 성과를 남기고 있으며 또한 민중가요 진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고 있기도 한 참으로 드문 존재이다. 먼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대학생살을 했던 이들에게 윤민석의 노래는 언제 어디서든 한두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친구같은 존재였다. 1984년 한양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하여 한양대 중앙노래패 '소리개벽' 활동을 하면서 뒤늦게 노래운동을 시작한 그는 김성민, 유인혁과 함께 김민기/한돌-김호철/문승현의 뒤를 잇는 제3세대

사회의 최대 히트곡이었다. 특히 “.....조금만 더 쳐다오 / 시퍼렇게 날이 설때까지 / 아아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라고 선포했던 '전대협 진군가'는 당당한 노랫말과 격렬한 멜로디의 놀라운 결합이 주는 감동과 함께 백만 학도를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라는 단일한 조직체로 묶어주는 정서적 통합체가 되었다. 당시 급성장했던 전대협 학생운동의 배후에 그의 노래가 있었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애국의 길로 나선 화려한 감각파'라고 그를 규정했던 노래평론가 이영미의 글에서처럼 그는 매우 선율적인 멜로디와 감각적인 노랫말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키며 사람들을 격렬하게 흥분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이것은 그가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과 맞물려 자신의 음악적 감수성을 키워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가 그 후에 내놓은 노래들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영미적

민중가요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히트곡 제조기이기도 했다. 대학 4학년때인 1987년부터 본격적인 민중가요 창작작업을 시작한 그는 '광주여! 무등산이여!', '반미출정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편지 1, 2, 3'을 비롯하여 당시 전대협 100만학도의 입으로 함께 불리워진 불멸의 노래 '전대협 진군가'와 '애국의 길' 등의 노래를 통해 학생운동진영을 강타했다. 대체로 민중가요 전문창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가 학생운동권 안에서 불리워지던 시기에 대학 노래운동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그의 노래는 말 그대로 당시 대학

애국의 길로 나선 화려한 감각파

그는 '전사의 맹세 1, 2' 같은 노래들에서는 북한풍의 비장한 노래들을 선보였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대중적인 통일노래로 불리워지는 '서울에서 평양까지'와 같은 노래에서는 소위 뽕짝리듬을 현대적으로 변형시켜 택시기사가 쓴 노랫말의 소박함을 극대화함으로써 대중성과 예술성의 양 날개를 모두 거머쥐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정열이 부른 '그대 고운 내 사랑'이나 정태춘, 박은옥이 부른 '들국화'나 '소리 없이 흰눈은 내리고'에서 보여주는 담백하고 절제된 서정성은 그의 음악적 내공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서울지역대학노래패협회의회의 간사를 거쳐 노동자노래단 활동을 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준비하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조직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1996년 청년음악집단 '프로메테우스'를 창립한다. 여기서 그는 '윤민석과 함께 하는 몇 가지의 실험' 음반과 '김남주 시인 육성 낭송시선 1집'을 제작하는데 특히 '윤민석 실험' 음반은 말 그대로 다양한 장르적 실험을 시도한 음반으로 당시 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락과 보사노바, 국악, 발라드, 왈츠 등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망라한 그 앨범은 윤민석 특유의 감각적 멜로디가 여전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가 좀 더 폭넓은 이야기들을 담고 싶어함을 조심스럽게 고백한 윤민석의 작품집이었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를 운영하며 긴 모색의 시간을 거친 그가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바로 민중가요 창작 사이트 '송앤라이프(<http://songnlife.com/>)' 때문이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쌍방향 네트워크 방식으로 소통채널이 변화하는 현실에 주목한 그는 인터넷 사이트 송앤라이프를 열고 이를 통해 기동성 있게 시의적절한 노래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민중가요의 유통방식이 주로 음반을 통한 것이었기에 다소 시의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음반을 구매한 한정된 대중들만을 만날 수 있는 단점은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단숨에 극복되었다. 특히, 오노 사건을 풍자한 노래 'Fucking USA'와 이회창을 비꼰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등의 노래는 수많은 네티즌을 통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며 다시 한번 민중가요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알렸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중가요가 결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고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민중가요를 강렬하게 바라보고 있음, 즉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음

가슴 벅차게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소통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우리 시대의 집회가 광장으로 옮겨지는 변화에 정확하게 맞물려 윤민석의 노래는 온라인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을 바꿔 버린 놀라운 힘을 보여 주었고 말 그대로 민중가요의 보급과 유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시작해 오프라인을 바꿔 버려

얼마전 탄핵정국의 촛불집회 현장에서 한목소리로 불리워진 '너흰 아니야'는 바로 윤민석이 지금껏 벌여온 민중가요 작업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호응이며 동의라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의 새 노래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이 민중가요 창작자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민중가요의 활로를 열어가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민중가요의 창작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이도 드물지만 세기가 바뀌면서 더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활동방식을 개척한 것은 윤민석의 고민과 열정이 얼마만큼인지를 짐작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좋은 노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송앤라이프(<http://songnlife.com/>)의 후원회원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상이 결코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가 아니던가?

〈사진 도움 -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서정민감

진보적 음악운동단체인 한국민족음악인협회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공연기획, 음반제작, 음악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문화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문화와 관련한 자유로운 글쓰기도 즐기고 있다.